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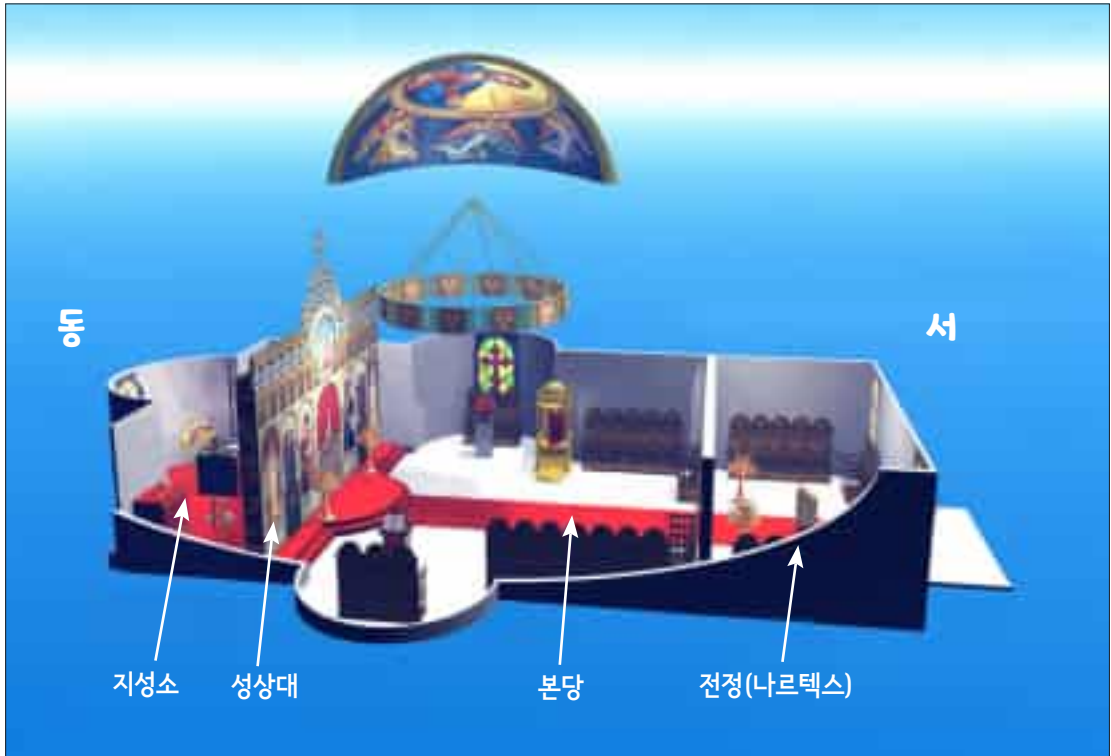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08호

2025.01.1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 12 주일
성 마카리오스 대수도자
성 마르코스 에페소 대주교
(제5조 •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164
-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봉)362
- 복음경 : 루가 17,12~19 13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성당의 구조

정교회 성당의 내부는 전정(나르텍스), 본당, 지성소, 서 부분으로 나뉜다.

전정은 성당 입구로서 서쪽에 위치하며, 원래 예비신자들은 복음경 봉독에 이어서 설교가 끝나면 본당에서 나와 이곳에서 성찬예배를 참례하였다.

본당은 방주를 상징하며, 성당의 중앙 지역으로 세례신자들이 성찬예배를 참례하는 곳이다. 성상대(이코노스타시스)는 제단이 있는 지성소와 본당을 구분한다. 본당에는 주교좌와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암본, 그리고 다양한 성물과 회중석이 자리하고 있다.

지성소에는 거룩한 제단과 예비 제단이 있다. 이 거룩한 장소는 오직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바쳐진 곳이므로 신품성사를 통해 교회의 전례를 책임지는 성직자와 축복받은 복사만 들어갈 수 있다.

감사의 표현

한의원 알렉산드로스 신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하느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또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소중함을 잃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소중함을 얻고 잃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몸을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순종의 자세를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낫는 기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병이 온전히 치유되면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도 병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믿음의 자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단한 순종의 자세로서 그들의 믿음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고 받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받게 된 그들은 너무도 기뻐서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급히 서둘러 각자 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

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분의 사랑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려고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사랑을 베푸심에 대해 사람들이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 우리도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주고받고 하며 나뉘어 합니다. 결국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주님의 큰 축복으로 바로 구원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치료도 받았고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명은 오직 육신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보답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영적 물질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맙게 해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 표현될 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더하여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더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쁘르피리오스 성인의 선물 (1)

어느 무명인의 개인적 증언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종이 울리고 나서, 아토스 성산에서 수도생
○ 활하셨던 뿌르피리오스 성인을 기념하는
철야예배가 시작되었다.

등불은 꺼지고 오로지 촛불만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 불빛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선구자 요한과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얼굴 앞에서 빛났으며, 특히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이콘은 조용한 성당 안 전체를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 많은 다른 성인들의 얼굴이 두드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침묵이 하느님의 영광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었다.

성가대는 입을 모아 기쁘게 성가를 부르고, 거기 모인 모든 이들과 성당 안의 모든 성물들은 성인과 함께 축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 또한 부드럽게 성가를 부르긴 하지만, 낮에 일어난 까닭에 지쳐서 한쪽 어깨를 성인이 그려진 벽화 아래의 벽에 기대고 있다. 나는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두 눈을 감기도 한다.

곧바로 문 오른쪽에서 새가 귀엽게 짹짹거리

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나는 눈과 귀를 활짝 연다.

새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성가대원들이 성인에 대한 성가를 부르자 새도 자신만의 소리와 리듬으로 계속해서 울어댄다.

다시금 나는 내 정신이 나를 속이고, 내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새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 마침내 나는 그것이 교회의 작은문 옆 바깥에 있는 작은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듣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돌아서서 내 곁에 서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작은 새가 짹짹 거리는 것이 들리나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짓는다. 내 마음은 기쁘다. 이 작은 새는 오늘밤 다른 새들과 함께 잠들지 않았다. 그 새는 자기 부모와 형제, 친구, 가족, 햇대를 떠나 어둠과 추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인을 위해 노래하려고 온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주간 예배 안내

- * 1월 21일(화)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도자
- * 1월 25일(토)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2025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신앙과 직제 협의회’가 주관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올해는 우리 성당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월 23일(목) 저녁 7시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알림

■ 대교구 의회 공고

1월 19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1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는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부에는 의안 결의와 발언권을 가진 의회 의원들만 참석합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교구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2월 4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2/11(화)-14(금) (참가비 9만원)
-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2/14(금)-16(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수요일, 토요일 줌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영성생활에 관한 대주교님의 강론이 온라인(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신부님이나 아가티 수녀님에게 문의하시면 링크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주일학교 모임이 온라인(줌)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머릿속에 담지 말라

형제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행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즉시 잊어버리면 사탄들은 우리를 함부로 괴롭히지 못한다.

